



관광에서의 진정성 연구에 기여한 주요 학자들

Prominent scholars and their contributions to authenticity research in tourism studies

심 창 섭*

Shim, Chang-Sup

요약: 관광학 연구의 역사에서 진정성 개념은 중요하면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논쟁을 통한 학술적 축적이 진행되어 왔다. 관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근원적 기제와 관련된 진정성 개념은 규범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세계관을 포괄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관점이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에서의 진정성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 4명과 그들의 진정성 개념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니엘 부어스틴은 진짜같은 가짜로 가득찬 미국사회를 대표하는 현상 중 하나로 대중관광을 지목하고 '의사사건'의 개념을 통해 관광객을 진정성에 관심없이 오직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명한다.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딘 맥캐넬은 '무대화된 진정성'의 개념을 통해 관광객은 상품화된 관광지 이면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진정성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에릭 코헨은 관광객 유형에 따라 진정성의 추구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진정성은 고정된 가치가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협상가능한 가치라고 설명한다. 닝 왕은 관광대상의 진짜 여부에 초점을 맞춘 진정성 개념을 관광객의 주관적 경험에 적용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실존적 진정성 개념을 제시한다. 각 학자의 진정성 개념은 그 학자의 관광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각을 형성한 그의 학문적 궤적과 세계관 그리고 시대적 맥락까지 반영한 텍스트이다. 또한 인류 문명의 진보 속에서 인간이 '진짜'라는 규범적 가치를 관광이라는 행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정립해 나갔는지를 되돌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어: 진정성, 다니엘 부어스틴, 딘 맥캐넬, 에릭 코헨, 닝 왕

ABSTRACT: The concept of authenticity has played a crucial and unique role in the history of tourism studies, resulting in theoretical advancements through vigorous debates. Focusing on the fundamental mechanism of tourism,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authenticity concept have facilitated diverse academic perspectives and traditions to interact with one another. The current study aims to introduce four prominent scholars who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authenticity discussion in tourism studies and their conceptualization of authenticity. Daniel Boorstin pointed out mass tourism as a symbolic phenomenon of American society, which is full of fakes that seem to be real, and asserted that tourists only seek pleasure without interest in authenticity. Dean McCannell argued that tourists pursue

Received November 03, 2023 Revised November 08, 2023 Accepted November 13, 2023

*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cshim@gachon.ac.k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achon University.

Copyright ©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202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CC BY,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authors and source are properly cited.

authenticity, which is believed to exist behind commercialized tourist attractions, by using the concept of 'staged authenticity'. Erik Cohen suggested that each tourist pursues authenticity to various degrees and that authenticity is not a fixed value but a negotiable value that continuously changes. Ning Wang proposed the concept of existential authenticity, arguing that the concept of authenticity can be applied to the subjective experiences of tourists. Each scholar's concept of authenticity reflects not only the scholar's view on tourism but also his/her academic trajectory, worldview, and 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how humans have established the normative value of 'real' in the behavioral context of tourism amid the progress of human civilization.

Key words : Authenticity, Daniel Boorstin, Dean MacCannell, Erik Cohen, Ning Wang

I. 서 론

진정성(authenticity)¹⁾은 관광학 연구의 역사를 돌아볼 때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여전히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진정성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Rickly (2022)는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진정성'을 키워드로 적용하고 있는 논문이 약 4만 편 이상이며 관광학 관련 저널에 수록된 논문으로 한정해도 1,700개 이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진정성 관련 논문의 출판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진짜/가짜'의 구분을 지칭하는 어찌면 가장 명료하고 단순할 수 있는 개념이 관광이라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인간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관광학 연구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치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진정성이 지닌 어떤 개념적 특성이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에서 관광현상을 탐구해 온 학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포괄적인 틀을 가능하게 했을까?

우리 인간은 수려한 자연경관이나 중요한 역사유적을 찾아서,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가족·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관광을 한다(Crompton, 1979; Park & Yoon, 2009). 최근에는 맛있는 음식이나

특별한 쇼핑 기회를 찾거나, 흥미로운 이벤트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한 관광도 활발하다(Albayrak & Caber, 2018; Caber & Albayrak, 2016). 사실 관광이라는 행위의 표면적 형식과 양태는 지리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양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관광트렌드는 계속 등장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관광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학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피상적인 관광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관광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기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하나의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관광학의 근간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학자들은 인간이 일시적이지만 물리적, 심리적으로 일상을 떠나는 관광이라는 행위를 왜 지속하는가를 설명하고자 노력해 왔다(Crang, 1996; Reisinger & Steiner, 2006; Rickly-Boyd, 2012; Uriely, 1997).

이 과정에서 인간, 공간, 시간의 복합적 현상으로서 관광의 기본 작동원리와 관련된 수많은 가설과 담론이 쏟아졌는데, 규범적 특성을 지닌 '진정성' 개념은 다층적인 논의를 포괄하는 틀로서 매우 유용했다고 볼 수 있다. 관광학 연구의 역사를 통해 진정성 개념은 대중관광 등장 초기에 요구되었던 진짜/가짜의 근대적 이분법의 관점부터(Boorstin, 1961; MacCannell, 1973, 1976) 관광산업의 폭발적 성장

1) Authenticity는 일상생활 및 학술문헌에서 진정성, 고유성, 진본성, 진실성, 정통성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어 혼용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진정성으로 통일해서 사용하였다.

과 다변화에 따른 탈근대적 해체와 재구성의 흐름(Bruner, 1994; Cohen, 1988), 그리고 개별여행의 보편화에 따른 관광의 경험적 측면과 주관성의 강조(Wang, 1999; Stainer & Reisinger, 2007) 등 서로 다른 차원과 층위의 논의를 무리 없이 담아내어 왔다. 특히 진정성 개념은 유연하고 포괄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인류학, 사회학, 심리학 등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에서 관광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학자들의 관점이 교류하고 논쟁하고 타협할 수 있는 흔치 않은 장으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다(Cohen, 2007; Lau, 2010; Moore et al., 2021; Steiner & Reisinger,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관광학 연구의 역사에서 독특하고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해 온 진정성 개념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관광학연구>의 '우리 시대 여가/관광학자들과 여가관광연구' 특집호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 논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학자들과 그들의 독창적 진정성 개념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즉 이 연구의 기본 전제는 특정 학자가 관광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한 진정성의 개념은 그 학자의 관광에 대한 시각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각을 형성한 그의 학문적 궤적과 세계관 그리고 시대적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연구의 결과는 사회문화적, 과학기술적 진보 속에서 인간이 '진짜'라는 규범적 가치를 관광이라는 행위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정립해 나갔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II. 관광과 진정성

1.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의 의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극소수의 상류층에게만 허용

되는 행위였던 관광이 20세기 이후 경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를 통해 대중화되는 과정은 관광 욕구가 현대인의 보편적 욕구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Larsen, 2008; Uriely, 2005). 관광은 일상을 일시적으로 떠나는 행위이다. 일시적으로나마 평소의 삶을 영위하는 일상을 의도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우리 인간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일상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가치가 존재하며 우리는 관광을 통해 이 가치를 얻고자 한다는 사실을 내포한다(MacCannell, 1973, 1976; Wang, 1999).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은 서구에서 시작된 근대화의 산물로서 과학적 합리성과 시장경제적 효율성이 핵심적 작동원리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형성된 과밀한 도시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개개인은 갈수록 상업화되고 표준화되는 주변 환경과 고도로 분화된 사회 속 부속물이 되어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현대인에게 관광은 여러모로 '진짜'를 찾기 힘들어진 일상을 잠시나마 떠나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는 '진짜'를 찾아가는 행위이다(심창섭, 2022; Canavan & MaCamley, 2021; Cohen, 1988, 2007).

현대의 일상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짜', 즉 진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우며 이 두 가지 측면은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 논의의 이론적 근간을 형성한다. 첫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자본주의의 진전은 유례없는 상업화, 도시화, 세계화를 야기했고 대량생산을 통해 평균적 취향의 상품, 공간, 대중문화가 현대의 일상에 실 새 없이 쏟아졌으며 정교한 복제품과 모조품의 생산과 미디어를 통한 재현도 활발해졌다. '진짜'가 희소해진 현대 사회에서 학술적 전문성과 권위를 통해 유물, 미술품, 자료가 위조(fake)가 아닌 진품(genuine)인가를 검증하고 보전하는 상징적 기관인 '박물관'이 등장했다. 박물관의 핵심 기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감정 대상의 유일무이성, 순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하여 높

은 가격과 귀중한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 즉 진정성의 판단이었다. 박물관을 배경으로 사용되어 온 진정성 개념은 관광학 연구에서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진정성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며 유적, 전통, 음식, 축제, 건축 등 다양한 관광대상으로 적용이 확대되어 갔다(Lau, 2010; MacCannell, 1973, 1976; Trilling, 1972).

둘째, 과학적 합리주의를 절대적 진리로 진행된 서구식 근대화를 통해 우리의 일상은 전근대 시대와 비교해 탁월한 수준의 질서를 갖추게 되었으나 동시에 다양한 층위의 위계, 규범, 권위, 금기가 현대인의 삶에 중대한 결정요인이 되었다. 이와 함께 고도화되고 분화된 사회구조의 구성원으로서 현대인 개개인은 일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부여된 역할, 의무, 책임에 부합하기를 요구받고 이에 따른 제약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고 있다. 합리적 질서에 근간해 운영되는 현대의 일상에서 '진짜'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해 온 독특한 개성, 주관적 감정, 신체적 반응 등은 통제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각자의 사회적 정체성만이 개인의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 개인으로서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 철학은 진정한 자아와 정체성을 잃어버린 현대의 일상성을 주요 주제로 다루면서 진정성을 찾아 일상을 떠나는 행위로서 관광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즉 관광학 연구에 있어 실존주의 철학은 비일상의 영역인 관광을 일상의 규범과 책임이 일시적으로 유예되어 진정한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념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성 논의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Steiner & Reisinger, 2006; Wang, 1999).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 논의의 두 가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박물관 기반의 진정성 개념과 실존주의 철학의 진정성 개념은 진정성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관광의 기제에 대해 현대 사회의 서로 다른 측면 조명하고 있다는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관광이라는 복잡하고 맥락적인 사회

현상을 일상(비진정성)/관광(진정성)의 명료한 이분법을 통해 형식적인 범주로 단순화해 설명한다는 점에서 두 접근은 매우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는 이 두 가지 이론적 사조가 관광학 연구의 역사를 통해 진정성 개념이 담아낼 수 있는 담론 수준을 확장해 사회 현상으로서 관광의 개념적 위계를 제고해 왔으며 진정성 개념의 학술적 유효성을 현재까지도 유지시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2.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의 개념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대인은 일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진정성을 찾아 관광을 떠난다. 인간이 관광이라는 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특질(quality)로서의 진정성은 사실 '진짜'라는 명료하고 단순한 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진짜'는 관광이라는 행위의 동기이자 이상향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설명력을 갖지 못하며 관광의 맥락과 결합해야 비로소 지칭하는 바가 규정되는 규범적 개념(normative concept)이다. 따라서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유형의 관광 행위 및 현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진정성을 적용한 학술적 논의가 진전되면 될수록 진정성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해졌다. 즉,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은 시대적 흐름, 사회문화적 배경, 학술적 관심사에 따라 '관광'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더 나아가 인간이 일시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현대의 '일상'이 지닌 구조적 특징을 비추는 거울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학 연구에서의 진정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은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 개념이 어떻게 유형화되어 쓰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 개념은 <표 1>과 같이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 진정성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

〈표 1〉 Wang (1999)의 진정성 유형화

구분	특성
대상 관련 진정성 (Object-related authenticity)	객관적 진정성은 원본의 진정성이다. 따라서 관광에서의 진정성 경험은 원본의 진정성에 관한 인식론적 경험(예: 인지)이다. 구성적 진정성은 관광객 또는 관광개발자가 관광 각자의 상상, 기대, 선호, 믿음, 권력 등의 측면에서 관광대상에 투영하는 진정성이다. 같은 대상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진정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진정성 경험과 관광대상의 진정성은 서로에 대한 구성요소이다. 즉 관광대상의 진정성은 사실 상징적 진정성이다.
활동 관련 진정성 (Activity-related authenticity)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활동으로 활성화되는 존재의 잠재적인 실존적 상태이다. 따라서 관광에서의 진정성 경험은 관광이라는 역치의 과정에서 활성화된 존재의 실존적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다. 실존적 진정성은 관광대상의 진정성과는 무관하다.

분해 설명되고 있는데 Wang (1999)이 처음 제안한 이 유형화는 관광학 연구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활용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객관적 진정성(objective authenticity)으로 명백한 사실이나 과학적 검증에 근거할 때 특정 관광 대상이 진짜인가를 의미한다. 근대적 합리주의에 기원을 둔 객관적 진정성의 개념은 진정성이 관광 대상 자체에 내재하여 실제로 존재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가능한 특질이므로 관광자의 주관적 판단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두 번째 유형은 구성적 진정성(constructive authenticity)으로 관광자 개인의 특성과 관광자가 지닌 주관적 기대, 욕구,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특정 관광 대상이 진짜로 인식되는가를 의미한다. 후기구조주의 및 사회구성주의에 영향을 받은 구성적 진정성은 관광에서의 진정성이 절대적으로 정해진 특질이 아니며 관광대상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들의 지속적인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을 전제한다. 세 번째 유형은 실존적 진정성(existential authenticity)으로 일상에서 자아정체성의 상실을 겪고 있는 개인이 관광 활동을 통해 진짜 자기 자신과 조우했는가를 의미한다. 하이데거의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을 둔 실존적 진정성 개념은 관광이라는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결코 관광대상의 진정성일 수 없으며 일상의 규범이 유예된 비일상의 영역인 관광에서 관광자가 본래 자신을 회복할 때 관광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객관적, 구성적, 실존적 진정성의 분류는 관광에

서의 진정성에 대한 유형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광이라는 현상이 등장한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 인류가 관광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최근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진정화(authentication),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수행성(performativity) 등의 주제는 관광의 일상화, 스마트 혁명, 기후위기, 오버투어리즘 등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이슈가 인류의 관광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정성이라는 틀을 통해 고찰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관광의 작동원리를 인식론적, 존재론적 측면에서 포괄하는 진정성의 독특한 개념적 특성은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진정성의 등장과 여기에 반영된 시대적 담론에 대한 학술적 논쟁을 촉진함으로써 관광과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진정성 연구에 기여한 주요 학자들

관광학 연구의 역사에서 진정성 개념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논쟁을 통한 학술적 축적이 진행되어 왔다. 더욱이 다양한 층위의 학술적 관점을 포괄해 온 진정성 개념의 특성상 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의 정립에 직

· 간접적으로 기여해 온 학자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소개할 학자를 선정했다. 첫 번째 기준은 개념적 독창성으로 해당 학자의 진정성 개념이 다른 학자들과 뚜렷한 차별점을 갖고 있는가를 고려했다. 이러한 독창성은 진정성이 관광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이론적 설명력을 지닌 개념으로 정립되는 과정에 가시적 기여를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 기준은 현재적 유효성으로 해당 학자의 진정성 개념이 구시대적 유물로서의 가치가 아닌 시간이 흐른 현재의 관광 연구에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고려했다. 즉 학자의 관점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이를 현 시점의 맥락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학자를 소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다니엘 부어스틴, 딘 맥캐널, 에릭 코헨, 닝 왕의 4명의 학자와 이들의 독창적이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진정성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1. 다니엘 부어스틴

1) 다니엘 부어스틴의 생애²⁾

미국의 역사학자인 다니엘 부어스틴(Daniel J. Boorstin)은 1914년 애틀랜타에서 출생했으며 하버드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등에서 수학했고 최종적으로 1940년 예일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미국과 영국의 변호사 자격도 보유했던 그는 스웱스모어 칼리지, 시카고대학교,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로 근무했으며 1975년부터는 제12대 미국 국회도서관장을 역임했다. 1987년 은퇴 이후에는 전업 저술가로 활동하다 2004년 타계했다. 그는 미국적 경험(American experience)과 지성의 역사(intellectual history)에 주로 관심을 갖고 약

20여 권의 저서를 발간했다. 잘 알려진 저서로는 3부작으로 미국의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한 *The Americans: The Colonial Experience* (1958), *The Americans: The National Experience* (1965), *The Americans: The Democratic Experience* (1973)과 미국 사회를 비판한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1961), 미국 역사교과서로 채택된 *A History of United States* (1980), *The Discoverers* (1983), *The Creators* (1992), *The Seekers* (1983) 등이 있다. 1974년에는 *The Americans* 시리즈로 최고 영예의 문학상인 풀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 다니엘 부어스틴의 진정성 개념³⁾

부어스틴은 1961년에 집필한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를 통해 관광에 대한 그의 관점을 기술했다. 그는 의사사건(擬似事件, Pseudo event)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사회가 전반적으로 진짜 같은 가짜로 가득 차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현실을 보다 더 자극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사건의 개념을 ‘뉴스모으기가 뉴스만들기로’, ‘영웅이 유명인사로’, ‘여행자가 관광자로’, ‘형태가 그림자로’, ‘이상이 이미지로’, ‘미국의 꿈이 미국의 환상으로’라는 여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특히 그는 상업화와 대중매체의 발달로 급변하고 있는 미국사회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 중 하나로 대중관광을 지목하고 ‘여행자가 관광자로’라는 별도의 장을 통해 본질이 아닌 이미지와 환상을 좇는 당시의 관광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책에서 드러난 부어스틴의 관광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게 부정적인데 그 이면에는 상업화된 ‘관

2) 다니엘 부어스틴 저서의 저자소개 및 재직한 학교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필자가 재구성.

3) Boorstin (1961), Cohen (1988), MacCannell (1973, 1976), Wang (1999)를 바탕으로 작성.

광'(tourism)이 등장하기 이전 형태의 '여행'(travel)에 대한 그의 향수가 자리하고 있다. 그는 '여행'의 어원인 'travail'(고생)이 'trouble'(문제), 'work'(일), 'torment'(고통) 등을 내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과거의 여행은 오랜 계획과 많은 시간과 비용, 생명의 위험까지도 포함한 모험적이고 능동적 행위였다고 설명한다. 반면 19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처음 용어가 만들어진 '관광'이라는 개념은 즐거움(pleasure)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금전적으로 구매하는 수동적 행위로 묘사된다. 즉 대중화된 관광을 통해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는 자연이나 문화를 의도적으로 꾸미고, 박제하고 때로는 왜곡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의사사건일 뿐이며 과거의 영웅적인 여행자들은 달리 관광객은 피상적인 쾌락과 싸구려 재미를 쫓는 존재라고 설명된다.

진정성과 관련하여 그는 "관광자들은 외국문화의 진정성을 거의 좋아하지 않으며 각자의 편협한 기대를 더 중요시한다. ... 일본에서 미국인 관광객들은 무엇이 일본인지(Japanese)보다 무엇이 일본스러운 것인지(Japanesey)에 더 관심을 갖는다"라고 단언한다(Boorstin, 1961, p. 106). 그는 이 책에서 관광객을 진짜처럼 꾸미진 의사사건에 잘 속아 넘어갈 뿐만 아니라 진짜를 찾고자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즉 대중관광에서의 상품화의 과정은 자연이나 문화를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관광매력물이라는 의사사건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동시에 우리 인간을 과거 여행자들이 지닌 진정성에 대한 욕구를 잃어버린 말초적인 흥미만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대중관광을 통해 관광객들은 현지의 진짜 문화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자신의 집과 같은 안락한 환경에서 박제된 경관을 간접경험하는 관광상품을 무비판적으로 구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피상적 즐거움만을 쫓는 관광객이 대부분인 상

황에서 관광산업은 굳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정성을 고집할 이유가 없으며 관광객들의 수준 낮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집중하게 되어 결국 진정성은 영영 경험할 수 없는 가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부어스틴이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가 관광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학자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와 비교하면 관광산업의 발달이 미미한 초기 단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어스틴은 이 책을 통해 당시 미국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 중 하나로 대중관광을 지목해 역사적 함의를 읽어내고자 하는 선견지명을 보여줬다. 특히 그는 관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기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이후 관광학 연구에서의 진정성 논의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특히 관광을 '의사사건'이라는 '진정성'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이후 진정성 논의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중관광 및 관광객에 대한 그의 관점 그리고 의사사건에 대한 그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이후의 관광학 연구에서는 그가 진정성을 객관적인 가치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즉 관광객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상품화되는 과정 속에서 관광 대상이 왜곡되거나 포장되어 진정성을 잃는다는 그의 주장은 진정성이라는 것이 실재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이후 객관적 진정성의 개념적 근간이 된다.

2. 딘 맥캐넬

1) 딘 맥캐넬의 생애⁴⁾

미국의 사회학자인 딘 맥캐넬(Dean MacCannell)은 1940년 워싱턴주에서 출생했으며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학교의 인류학 학부를 거쳐 1969년 코넬대

4) Korstanje (2016) 및 딘 맥캐넬이 재직했던 학교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필자가 재구성.

학교에서 농촌사회학 석·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이후 템플대학교, 럿거스대학교를 거쳐 1975년부터 현재까지 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조경학과 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사회학자지만 여가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관광학 분야에서 적극 활동했으며 관광사회학 발전에 상당한 학술적 기여를 했다. 그는 레비 스트로스(Levi-Strauss)의 구조주의, 고프만(Erving Goffman)의 기호학적 접근, 마르크스(Karl Marx)의 계급이론, 베블렌(Veblen)의 여가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 일상이 어떻게 관광현상에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탁월한 저작을 남겼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1973),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976) 이 있으며 이외에도 *The time of the sign: A semiotic interpretation of modern culture* (1982), *Empty Meeting Grounds: The Tourist Papers* (1992) 등이 있다.

2) 딘 맥캐널의 진정성 개념⁵⁾

맥캐널은 사실상 관광학 연구의 진정성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학자로 인식된다. 앞서 소개된 부어스틴이 그의 대중관광의 특징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며 부어스틴의 진정성에 대한 관점은 사실 그의 관광에 대한 관점에 기초하여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 재구성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맥캐널은 1973년에 발표된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를 통해서 제목부터 '진정성'의 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을 포함한 이후의 저작들을 통해 드러난 그의 관광 및 관광자에 대한 개념화 과정에서 진정성의 개념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진정성의 측면에서 맥캐널이 관광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부어스틴의 관점과 상반된다. 즉 맥캐널은 관광자를 진정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흥미롭게도 맥캐널은 현대사회의 관광을 전근대사회의 '순례'(pilgrimage)와 비유해 설명한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간이 세속적 삶에서 얻을 수 없는 '성스러움'(sacred)을 쫓아 순례를 떠나듯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피상적(shallowness)으로 가득 찬 일상에 지쳐 어디엔가 존재할 진정성을 찾고자 관광을 떠난다는 것이다. 순례자가 종교적 중요성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과 관광자가 역사적, 사회문화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동일하게 인간의 진짜에 대한 동기가 기저에 있다고 맥캐널은 설명한다. 맥캐널은 부어스틴이 피상적인 즐거움을 쫓는 존재로 관광객을 비판하는 것을 오만한 지식인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라고 지적하며 다른 사람들도 부어스틴과 마찬가지로 진정성에 대한 욕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맥캐널의 진정성에 대한 관점의 근간에는 Goffman (1959)의 전면/후면(front/back region) 개념이 매우 핵심적이다. 연극공연을 예로 들었을 때 전면은 미리 연출된 무대에서 관객과 배우가 만나는 공간이며 후면은 배우와 관계자가 준비하고 휴식을 취하는 있는 그대로의 공간이다. 이 구조는 관광의 맥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관광객이 어떤 지역을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관광객의 기대와 편의를 고려해 의도적으로 준비된 관광매력물, 즉 전면에 있으며 그 지역의 현지인들이 평소와 같은 삶을 보내고 있는 생활공간, 즉 후면 역시 존재한다. 맥캐널은 모든 면에서 피상적인 가벼움으로 가득찬 현대사회의 일상을 떠난 관광객들은 연출된 관광매력물, 즉 전면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정성이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후면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원한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후면은 근대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본래 그대로의 상태, 즉 진정

5) Cohen (1988), Lau (2010), MacCannell (1973, 1976), Wang (1999)를 바탕으로 작성.

성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묘사된다.

맥캐넬은 “관광은 진정한 경험에 대한 욕구에서 동기화된다”(MacCannell, 1976, p. 597)라고 단언하지만 실제 관광의 맥락은 Goffman의 전면/후면의 개념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어 관광객이 진정성을 현실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한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광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연출된 진정성이란 의미의 ‘무대화된 진정성’(staged authenticity) 개념이 등장한다. 즉 대중관광에서는 진정성을 기대하는 관광객들을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인위적인 연출을 통해 관광객들 스스로가 후면에 진입해 진정성을 조우했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소방서를 견학해 평소에 쉽게 볼 수 없는 소방서의 실제 운영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관찰한 모든 것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미리 준비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맥캐넬은 관광객은 진정성을 추구하지만 이로 인해 대중관광에서 오히려 무대화된 진정성이 양산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관광객이 스스로 진정성을 경험했다고 느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 철저하게 진짜처럼 연출된 가짜, 즉 무대화된 진정성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관광자의 진정성 추구 여부에 대한 부어스틴과 맥캐넬의 시각은 정반대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재하는 가치로서 진정성을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두 학자의 진정성에 대한 입장은 유사하다. ‘의사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부어스틴과 마찬가지로 맥캐넬은 진정성을 ‘전면/후면’ 및 ‘무대화된 진정성’이라는 단언적인 용어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특정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객관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잡하고 맥락적인 사회현상인 관광을 이분법적인 범주로 명료하게 단순화한다는 측

면에서 맥캐넬의 진정성 개념은 이후 관광학 연구에서 객관적 진정성을 상징하는 개념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3. 에릭 코헨

1) 에릭 코헨의 생애

이스라엘계 사회학자인 에릭 코헨(Erik Cohen)은 1932년 유고슬라비아 자그레브에서 출생했으며 1949년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1954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사회학, 경제학, 철학 등을 공부했으며 학·석사학위를 거쳐 1968년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0년 이후 같은 대학에서 사회학 및 인류학 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의 초기 연구는 관광과는 무관한 이스라엘의 농촌커뮤니티에 관한 주제였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이슈인 이민자문제, 이문화 간 교류 등으로 확장하며 관광과 접점이 생기기 시작했다. 1972년 잘 알려진 *Toward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tourism*을 발표한 이후 급속히 관광 관련 연구주제로 관심을 옮겼으며 관광의 관점에서 축제, 음식, 종교 등과 관련한 저술을 남겼다. 태국으로의 현장연구를 지속하며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 (1979),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1988) 등을 저술하며 관광사회학의 토대를 마련한 학자로 평가된다. 특히 조직된 대중관광자(organized mass tourist), 개별대중관광자(individual mass tourist), 탐험자(explorer), 방랑자(drifter)의 4가지로 유형화한 그의 관광객 분류는 현재까지도 관광학 연구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2) 에릭 코헨의 진정성 개념

코헨은 1972년 발표된 *Toward a sociology of*

6) Cohen (2013) 및 에릭 코헨이 재직하던 학교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필자가 재구성.

7) Cohen (1972, 1979, 1988), Cohen and Cohen (2012), Wang (1999)를 바탕으로 작성.

international tourism 에서 진정성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자의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관광자가 있는 그대로의 현지문화를 어느 수준으로 경험하고자 하는지를 핵심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진정성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그는 이후 1979년 발표된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에서부터 진정성에 대한 독창적 논지를 형성해 나가는데 관광경험에 대한 그의 현상학적 접근은 관광자의 진정성 추구 여부에 대한 부어스틴과 맥케널의 상반된 관점을 모두 수용한다. 그는 관광자는 유형에 따라 진정성을 경험하고 싶은 정도에 차이를 갖기 때문에 부어스틴과 맥케널의 주장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종교적 개념인 '중심'(centre)를 적용하여 우리 개인은 각자의 사회의 '중심'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관광자 유형이 되며 진정성에 대한 추구 정도도 차이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중심'은 해당 사회의 존재 이유인 핵심 정신이자 절대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여기에 순응, 저항, 이탈하는 등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사회를 떠난 관광에서의 관심사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관광자에 따라 서로 다른 정도로 진정성을 추구한다고 주장한 코헨의 진정성에 대한 유연한 관점은 1988년 발표된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에서 더욱 강화된다. 그는 이 글에서 관광에서의 진정성은 결코 태초부터 주어진 개념(primitive concept)이 아닌 협상가능한 개념(negotiable concept)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상품화로 특징지어지는 대중관광에서는 오직 '무대화된 진정성'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관광자는 진정성을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맥케널의 주장을 반박한다. 진정성은 절대적, 객관적 개념이 아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socially constructed) 개념이므로 다수의 관광자들이 공감하여 관광대상의 진정성을 경험했다면 객관적인 가치와는 별도로 그 경험의 진정성은 인정되어야 한

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그의 시각에서 관광에서의 진정성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관광자가 갖고 있는 관광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현재 수준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상품화를 관광에서의 진정성 형성의 과정으로 이해하는데, 상품화에 따른 변화를 관광자들이 받아들이고 만족한다면 진정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즈니랜드 같이 진정성과 무관하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관광대상의 경우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는데 이를 '떠오르는 진정성'(emergent authenticity)이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 진정성을 상대적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가치로 인식한 코헨은 관광을 목적으로 자연이나 문화가 상품화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관광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화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자연적, 문화적 유산이 가치를 존중받고 보존될 수 있는 재정적 원천을 형성하며 동시에 해당 문화의 의도적인 '무대화'를 통해 현지문화에 대한 관광자의 무분별한 접촉을 통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코헨의 진정성 개념은 2012년 작성된 Authentication: Hot and Cool을 통해 진정성의 형성, 즉 진정화(authentication)까지 진전된다. 이 글에서 코헨은 진정성의 형성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Selwyn (1996)의 개념화를 참고하여 <표 2>와 같이 진정화를 차가운 진정화(cool authentication)와 뜨거운 진정화(hot authentica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차가운 진정화는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부여된 권위에 기반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정성이 인정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의미의 진정성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뜨거운 진정성은 특정 주체가 아닌 한 사회를 구성하는 대중의 믿음이나 관여, 몰입을 통해 비공식적이지만 내재적이고 점진적으로 진정성이 인정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표 2〉 Cohen & Cohen (2012)의 진정화 분류

기준	차가운 진정화	뜨거운 진정화
권위의 기반	과학적 지식, 전문성, 증명	믿음, 관여, 몰두
행위자	권위를 부여받은 개인 및 기관	특정 행위자가 없으며 참여한 대중의 실천적 결과
접근	공식 기준, 허용된 절차	분산적, 확산적
공공의 역할	관찰자로서 낮음	중첩적이고 참여적으로 높음
실천	선언, 인증, 승인	의식, 공물, 공동체의지지, 저항
시간성	일회성, 정적	점진적, 동적, 누적적
형성하는 경험	객관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
지속성	행위자의 신뢰도에 의존	반복적인 재확인
관광지예의 영향	침체효과, 화석화	의미의 확장 및 변혁

다. 그에 따르면 차가운 진정화는 대상을 주변 환경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단절하여 ‘차갑게’ 화석화하는 방식이며 뜨거운 진정화는 대상을 대중의 관심을 통해 대상에 ‘뜨겁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이다. 코헨은 두 방식의 진정화의 과정이 교차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같등하며 관광대상의 진정성을 형성해 나간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부어스틴과 맥케널이 진정성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을 통해 대중관광의 발전 과정을 진정성의 상실 과정으로 설명한데 반해 코헨은 관광에서의 진정성이 결코 고정된 가치가 아니며 시간적, 공간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 진정성이 객관적 기준으로 측정가능한 이미 존재하는 가치가 아닌 대중의 기대를 반영한 상품화까지도 수용하는 개념이라는 그의 진정성 개념은 이후 관광학 연구에서 구성적 진정성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4. 닝 왕

1) 닝 왕의 생애⁸⁾

중국의 사회학자인 닝 왕(Ning Wang, 王宁)은

1960년 중국 푸젠성에서 출생했으며 중국 샤먼대학교 학부를 마친 후 영국으로 유학해 리즈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과정을 거쳐 1996년 셰필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부터 중국 중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동남대학교 인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1999년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를 통해 관광자의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관광학 연구에서의 진정성 논의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에는 관광 관련 주제의 연구보다는 일반사회학, 소비자사회학, 질적연구방법 등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Tourism and modernity: A sociological analysis* (2000)이 있다.

2) 닝 왕의 진정성 개념⁹⁾

1999년 왕이 발표한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는 관광에서의 진정성에 대한 이론적 발전의 역사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당시까지의 관광에서의 진정성 논의를 객관주의, 사회구성주의, 탈근대주의 등의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재구성하고 진정성을 객

8) 닝 왕이 재직하는 학교 웹사이트 등의 정보를 취합하여 필자가 재구성.

9) Kim and Jamal (2007), Stainer and Reisinger (2006), Wang (1999, 2000)을 바탕으로 작성.

관적 진정성, 구성적 진정성, 실존적 진정성으로 유형화 및 명명했다는 점이다. 진정성에 대한 그의 유형화는 현재까지도 관광학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인 유형화로 인정받으며 널리 활용되고 있다. 둘째, 그동안 관광의 대상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논의되어 온 관광에서의 진정성의 개념을 주관적인 관광 경험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에 의한 진정성 개념의 확장은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관광형태까지도 진정성 개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진정성 개념이 관광학 연구에서 현재까지도 유효한 틀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과 관련된 그의 문제의식은 부어스틴, 맥케널, 코헨 등을 통해 계승된 전통적인 진정성 개념이 현재의 관광현상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에서 발현되었다. 그는 진정성 개념이 역사 및 문화관광 등 일부 유형에는 여전히 적합할 수 있지만 VFR, 해변휴가, 크루즈, 자연관광, 디즈니랜드, 쇼핑, 낚시, 사냥 등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탈근대시대로 접어드는 현대 사회에서는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어 관광대상의 객관적 진정성의 추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그는 관광에서 진정성의 개념이 설명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오랫동안 진정성을 탐구해 온 실존주의 철학의 관점을 도입해 실존적 진정성이라는 독창적인 진정성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다.

하이데거(Heidegger) 등의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진정성 개념은 '진짜 나'(true self)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근대화된 서구 사회에서 인간은 사회적 규범에 부합하는 역할 속에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본다.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옥죄고 있는 일상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왕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여행을

진짜 자신, 즉 실존적 진정성을 경험할 기회라고 묘사하고 있다. 왕은 실존적 진정성을 역치성(liminality)의 개념과 관련해 설명하는데 인간에게 있어 일상을 떠난 관광의 환경은 의무나 직업윤리 등 사회적 제약이 잠시 유예된 '역공간'(liminal zone)이 되어 개인을 스스로에게 더욱 솔직해지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는 실존적 진정성을 다시 내재적 진정성(intra-personal authenticity)와 관계적 진정성(inter-personal authenticity)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한다. 내재적 진정성은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 왕은 내재적 진정성의 대표적인 예로 속박없는 신체적인 느낌의 경험이나 자유로운 자아 표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적 진정성은 타인과의 왜곡되지 않은 순수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여행을 통한 가족의 결속력 강화나 관광지에서 형성하는 공동체 등을 제시한다.

왕은 실존적 진정성이 관광자 스스로가 진정한 자아를 주관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이들이 마주하는 관광대상의 객관적 진정성 여부와는 무관한 독립된 가치이며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실존적 진정성 개념 자체가 인간이 근대화된 일상을 벗어나면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는 향수적 환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즉 관광에서의 진정성에 대한 왕의 새로운 개념화는 그동안 과도하게 관광 대상이 '진짜'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온 진정성 논의에 있어 주체성(subjectivity)의 중요성을 부각했다는 데 의의를 갖는다. 특히 대중관광의 상징적 가치인 관광대상의 보편적, 객관적 매력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의 실존적 진정성 개념은 자아발견, 웰니스, 플로우 등 관광의 경험적, 정서적 측면이 중요시되는 개별관광 시대를 미리 예견한 개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최근 관광학 연구에서 등장하는 진정성 연구 가운데 실존적 진정성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왕의 기여로 인해 관광학 연구에서의 진

정성 개념의 생명력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Rikly, 2022).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현대인의 삶에서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관광의 근원적 구조를 진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 학자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했다. 소개된 4명의 학자는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과 시공간적 맥락에서 관광현상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이 진정성과 밀접한 개념적 연관성을 갖는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저마다의 지적 관심을 쏟았다. 특히 이들은 관광을 진정성의 렌즈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광 그 자체뿐만 아니라 관광자가 일시적으로 떠난 일상, 즉 현대 사회의 특징에 접근할 기회를 얻게 된다. 어쩌면 역사학자, 사회학자인 이들은 원래부터 관광을 이해하고자 했다기보다는 관광이라는 함축된 텍스트를 통해 그들이 살고 있던 각각의 사회를 이해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즉 부어스틴과 맥캐널의 진정성 개념에서는 급속한 근대화과 기술발달로 진짜가 사라져가는 당시의 사회를 볼 수 있으며, 코헨의 유연한 진정성 개념은 서로 다른 관점이 공존하는 다원화된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왕의 실존적 진정성은 인간 주체성의 상실을 야기하는 체계화된 규범과 책임으로 가득한 우리 현실을 비추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상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이 갖는 학술적 가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던 전 세계의 관광 총량이 지난 1~20년 사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광은 더 이상 특별한(extraordinary) 활동이 아닌 일상적인(ordinary) 삶의 일부가 되었고 일상과 대조되는 비밀상으로서 관광의 의미는 퇴색하고 있다. 일상과 관광의 경계가 모호해진 ‘관광

의 종말’(The end of tourism) 시대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일상에 존재하지 않아 관광을 통해 찾고자 했던 특질로서 진정성의 개념이 과연 여전히 유효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실제로 관광 관련 저널에서 발표되는 진정성 관련 연구의 양적 규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어스틴, 맥캐널, 코헨, 왕으로 이어지는 진정성 논의의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만한 새로운 학술적 성취는 2000년대 이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진정성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관광자의 직접 경험을 강조하는 수행성, 관광 대상의 가장 최신의 상태에 가치를 두는 현대적 진정성(contemporary authenticity), 관광에서의 진정성 추구의 윤리성 문제 등 새로운 관점이 일부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많은 이론적 성숙이 필요한 상황이다(김현정, 2022; 심창섭, 상삼요, 2017; Canavan & McCamley, 2021; Mkonon, 2020; Shim & Santos, 2013).

진정성 개념이 관광학 연구의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국내 관광학 연구에서 진정성에 대한 논의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관광현상의 표면적인 양상보다는 근거를 이루는 인식론적, 존재론적 이유를 찾아가는 진정성의 성격상 개념적, 정성적 접근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 발표된 대다수의 국내 연구는 진정성을 정량적 모형을 구성하는 하나의 변수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성 개념은 다의적이고 유동적이며 끊임없이 변화는 개념으로서 고정된 진정성 변수를 활용한 정량연구 결과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 관광자가 부여하는 진정성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할 때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광현상을 보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석하는 정성연구가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에 기반한 정량연구의 신뢰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근대 사회가 진전되면서 점

점 더 다양한 의미가 부여될 관광이라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진정성 개념은 관광을 다른 현상과 구분짓는 근원적인 특징으로서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소개한 학자들은 진정성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진정성에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이 일상으로부터의 이격이라는 사실에 의견을 일치하며 그것이 관광의 근본적 작동원리라고 주장한다. 즉 일시적이지만 일상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으로 벗어나는 행위라는 관광의 근본적 성격이 변하지 않는 한 진정성 개념은 휴식, 위락, 소비, 놀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유사한 활동과 구분되는 관광의 보편적 동력으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속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가 알고 활용하는 관광에서의 진정성에 대한 지식은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관광학의 존재 이유를 찾고자 한 여정의 탁월한 결과물이다. 융복합과 다학제적 협력의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우리 관광학이 뚜렷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선대 학자들의 진정성 탐구과정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claration of competing interest

None.

Author's contribution

Shim, Chang-Sup: Conceptualization and Writing.

References

- 김현정 (2022).택티컬어바니즘을 통한 도시관광의 진정성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46(2), 13-38.
- 심창섭 (2022). 관광에서의 진정성 문제. 한국관광학회 (편), <문화관광론>. (pp. 153-177). 백산출판사.
- _____, 상삼요(2017). 도시관광에서 현대적 진정성의 의미: 신사동 가로수길의 중국인 개별 관광객에 대한 에스노그래피. <관광학구>, 32(2), 429-447.
- Albayrak, T., & Caber, M. (2018).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ourist motivation and satisfaction by two competing methods. *Tourism Management*, 69, 201-213.
- Boorstin, D. (1961). *The image: a guide to pseudo-events in America*. New York: Harper and Row.
- Bruner, E. M. (1994). Abraham Lincoln as authentic reproduction: A critique of postmodernism. *American Anthropologist*, 96(2), 397-415.
- Caber, M., & Albayrak, T. (2016). Push or pull? Identifying rock climbing tourists' motivations. *Tourism Management*, 55, 74-84.
- Canavan, B., & McCamley, C. (2021). Negotiating authenticity: Three modernit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88, 103185.
- Cohen, E. (1972). Toward a sociology of international tourism. *Social Research*, 39(1), 164-182.
- _____. (1979). A phenomenology of tourist experiences. *Sociology*, 13(2), 179-201.
- _____. (1988). Authenticity and c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3), 371-386.
- _____. (2007). Authenticity in tourism studies: Après la Lutte. *Tourism Recreation Research*, 32(2), 75-82.
- _____, & Cohen, S. A. (2012). Authentication: Hot and cool.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3), 1295-1314.
- Cohen, S. A. (2013). A portrait of Erik Cohen. *Anatolia*, 24(1), 104-111.
- Crang, M. (1996). Magic kingdom or a quixotic quest for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23(2), 415-431.
- Crompton, J. L. (1979).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6(4), 408-24.
- Korstanje, M. E. (2016). The portrait of Dean

- MacCannell-towards an understanding of capitalism. *Anatolia*, 27(2), 298-304.
- Kim, H., & Jamal, T. (2007). Touristic quest for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4(1), 181-201.
- Larsen, J. (2008). De-exoticizing tourist travel: Everyday life and sociality on the move. *Leisure Studies*, 27(1), 21-34.
- Lau, R. W. (2010). Revisiting authenticity: A social realist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37(2), 478-498.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9(3), 589-603.
- _____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New York: Schocken Books.
- Mkono, M. (2020). Eco-hypocrisy and inauthenticity: Criticisms and confessions of the eco-conscious tourist/traveller. *Annals of Tourism Research*, 84, 102967.
- Moore, K., Buchmann, A., Månsson, M., & Fisher, D. (2021). Authenticity in tourism theory and experience. Practically indispensable and theoretically mischievous?. *Annals of Tourism Research*, 89, 103208.
- Park, D. B., & Yoon, Y. S. (2009). Segmentation by motivation in rural tourism: A Korean case study. *Tourism Management*, 30(1), 99-108.
- Reisinger, Y., & Steiner, C. J. (2006). Reconceptualizing object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1), 65-86.
- Rickly-Boyd, J. M. (2012). Authenticity & aura: A Benjaminian approach to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39(1), 269-289.
- Rickly, J. M. (2022). A review of authenticity research in tourism: Launching the Annals of Tourism Research Curated Collection on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92, 103349.
- Selwyn, T. (1996). *Tourism image: Myths and myths making in tourism*. Chichester.
- Shim, C., & Santos, C. A. (2014). Tourism, place and placelessness in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shopping malls in Seoul. *Tourism Management*, 45, 106-114.
- Steiner, C. J., & Reisinger, Y. (2006). Understanding existential authenticity. *Annals of Tourism Research*, 33(2), 299-318.
- Trilling, L. (1972). *Sincerity and Authenticity*. Oxford University Press.
- Uriely, N. (1997). Theories of modern and post-moder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4), 982-985.
- Wang, N. (1999). Rethinking authenticity in tourism experienc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6(2), 349-370.
- _____ (2000). *Tourism and Modernity: A Sociological Analysis*. Oxford: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